

삶과 일에 관한 영원한 진리 TIMELESS TRUTHS OF LIFE AND WORK

By Stephen R. Graves

나는 군인이 아니다. 나는 무장한 채 밤새 보초를 선 적이 한 번도 없다. 큰 전투에서 싸워본 적도, 적국의 영토에 상륙해 본 적도 없으며, 공적으로 군복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적도 없다. 나는 또한 재능 있는 운동선수도 아니다. 매주 몇 킬로씩 자전거를 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아이언맨 경기 선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오해한 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해 본 적도 없다. 뒤뜰에서 토마토를 몇 개 키워본 적은 있지만, 내 친구 중 나를 농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I am not a **soldier**. I have never picked up a weapon and stood guard during the night. I have never fought in a great battle, landed in hostile territory, or had a legitimate reason to wear a military uniform. I am also not a gifted **athlete**. I ride my bicycle some miles every week, but that has rarely caused anyone to confuse me for an Ironman competitor or Olympic medalist. And I have also never harvested a farm crop for money. We have grown a few tomatoes in the backyard but none of my friends call me a **farmer**.

그러나 내가 만약 성경 시대에 살았다면 군인, 운동선수, 농부 중 어느 한 직업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 농부와 군인은 흔한 직업이었고, 운동선수들은 오늘날만큼이나 명성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직업을 예로 삼아 믿음의 사람들이 일에 임할 때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언급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2:3-6)

But if I had lived in the days of the Bible, there is a good chance I would have connected in some way to one of these three vocations – soldier, athlete, or farmer. The farmer and soldier were common “career tracks,” and athletes were just as prominent then as they are today. The apostle Paul used these three vocations to present universal virtues people of faith should strive to achieve in their work. He wrote:

“Endure suffering along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Soldiers don’t get tied up in the affairs of civilian life, for then they cannot please the officer who enlisted them. And athletes cannot win the prize unless they follow the rules. And hardworking farmers should be the first to enjoy the fruit of their labor” (2 Timothy 2:3-6, NLT).

Paul was saying that each job carried – as remains true today – a dual set of virtues worth pursuing:

군인: 인내와 집중. 전시에 군인인 것은 결코 재미있는 일은 아니다.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군 복무를 휴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전쟁은 고통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힘들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적다.

군인은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견디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한번 전투가 시작되면,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 전투를 떠날 수 없다.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다고 설 수도 없다. 휴식 시간도 없고, 병가도 없다. 주변의 혼란한 상황에 정신을 빼앗겨서도 안 되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

The Soldier: Endurance and Focus. Being a soldier during wartime is not fun. It was not when Paul wrote to his protégé Timothy, and today no one would consider it a vacation. War is unforgiving, unpredictable, and uncomfortable. Much is demanded and little is given in return. The soldier must be able to consistently endure hardship without complaint and always remain focused on his task. Once a battle begins, the soldier is in it until his job is done. He cannot take a break when hungry or tired. There's no time off. No sick days. He cannot let his mind wander or be distracted by chaos around him.

운동선수: 규율과 야망. 진정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는 단지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재능 있는 선수는 많지만, 그 중 상당수가 가진 재능을 허비한다. 훌륭한 선수와 재능을 허비하는 선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훌륭한 선수는 자신의 재능에 내적 동기와 외적 훈련을 더 한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어 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희생한다.

The Athlete: Discipline and Ambition. Truly great athletes are not just talented. Many players have talent, and plenty of them have squandered it. The difference between great players and ones who waste talent is the great ones combine their talent with inner drive and outer discipline. They are not content with the potential to be great. They *want* to be great and are willing to work and make sacrifices to get there.

운동이든 일이든, 성공은 "갈망하는 것"(우리가 흔히 야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야망 중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무조건 이기려 드는 형태도 있지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존경할 만한 형태도 있다. 야망을 이루려면 단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훈련은 그때그때 사소하지만, 옳은 결정들이 모여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되는 과정의 연속이며 결국 인생이나 커리어 전체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In athletics and in work, success starts with the "want" – what we might call ambition. There are unhealthy, all-consuming, win-at-all-costs versions of ambition, but there is also an admirable type that separates humans. It is not enough to just desire to be better. We must take the steps to get better, to be disciplined. Discipline in any area amounts to a series of significant choices, always making the small right decisions that result in a life or career of right choices.

농부: 근면과 인내. 모든 농부가 해마다 따르는 단순한 공식이 있다. 바로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좋은 농부는 성급할 수가 없다. 사실 게으른 농부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비즈니스와 노동 시장에서 대부분의 직업은 1세기 농부만큼 극단적인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덕목이 필요 없는 직업은 없을 것이다.

The Farmer: Hard Work and Patience. There is a simple formula every farmer relies on every year: hard work and patience. A good farmer cannot be impatient; a lazy farmer is a contradiction. In successful farming, hard work and patience are essential. While most occupations in today's marketplace may not demand hard work and patience in the same degree as farming in the first century, I do not know of any job that does not require some measure of these virtues.

고용주는 신입사원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세'는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하는 기술이다. 확고한 직업 윤리가 없다면, 재능이나 지능, 창의성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다. 인내에 대해 논하자면,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쿠키를 제대로 굽는 데 30 분이 걸린다면, 그건 쿠키를 굽는 데 30 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직원을 제대로 훈련하는 데에도 시간은 걸린다.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자세와 인내가 필요하며, 여기에 지름길은 없다.

Employers will provide on-the-job skills training for new employees, but working hard is a skill we must bring with us. Because without a solid work ethic, talent, intelligence and creativity are of little value. As for patience, despite advances in technology, there are still many things we cannot speed up. If baking cookies takes 30 minutes, it takes 30 minutes. 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and properly training productive employees also take time. They require both hard work and patience – and no shortcuts.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세 가지 직업(군인, 운동선수, 농부) 중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가장 공감이 가나요? 혹시 이 세 가지 직업 중 하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관련 특징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Which of the three vocations listed can you identify with the closest: soldier, athlete, or farmer? Have you ever participated directly in any of the three? If so, what do you think of the specific traits that are cited?

2. 당신은 직장에서 인내와 집중이라는 덕목을 자주 보나요? 아니면 좀 드물게 볼 수 있거나, 또는 굉장히 드물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Would you say that endurance and focus are qualities you often see in the workplace, or are they comparatively rare or even unusual? Explain your answer.

3. 매일 맡은 책임과 업무를 감당하면서 '훈련'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또한 성공적인 근로자에게 야망(ambition)은 긍정적인 자질일까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How does discipline fit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you must fulfill each day? Do you think that ambition is a good quality for a successful worker – or can it be a liability? If you can, give an example.

4. 누군가 당신과 당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묘사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인내"를 당신의 강점으로 꼽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f someone were to describe you and your working style, would they say that hard work and patience are among your assets? Why or why not?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14:23, 16:26; 고린도전서 3:9; 에베소서 2:10; 디모데후서 3:16-17; 야고보서 3:14-16

Proverbs 14:23, 16:26; 1 Corinthians 3:9; Ephesians 2:10; 2 Timothy 3:16-17; James 3:14-16

- **(잠언 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 **(잠언 16:26)**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 **(고린도전서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야고보서 3:14-16)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어, 삶과 일에 관한 영원한 진리인 인내, 집중, 규율, 야망, 노력, 인내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덕목은 무엇이며,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Try to set aside some time this week and reflect on the timeless truths cited that pertain to life and work: endurance, focus, discipline, ambition, hard work, and patience. In which of these areas do you think you are strongest? In which do you think you are the weakest?

만약 CBMC 그룹이나 동료 자문 그룹(peer advisory group)에 속해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합니다. 향상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또한 멘토나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혹은 서로 돌아보고 붙잡아주는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들과도 그렇게 해보세요.

If you are in a CBMC group or peer advisory group, it might be useful to talk about this with those individuals. Discuss ways you can supp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in making positive strides in areas that could be improved. You could do the same with a mentor, close friend or accountability group.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자: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